

광산구 주민대책위 “배상 특별법 제정·군공항 이전 총력”

광주 군공항 소송 파기 환송 파장

광주 군공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송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대법원이 15일 원심을(원고 일부 승소)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주민들은 낙담하면서도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군공항 이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대법원이 배상의 기준이 되는 ‘소음을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주민들이 주장했던 80웨클(소음평가 단위·클수록 시끄러움)이 아니라 정부가 주장했던 85웨클로 판단하면서 배상자와 배상액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게 기정 사실화됐기 때문이다.

소송을 이끌었던 주민대책위는 “사법부에 더는 기대를 걸지 않겠다”면서 역량을 특별법 제정과 군공항 이전운동에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광주군공항과 군공항 이전 논의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주민들 낙담 속, 군공항 이전 의지 밝혀= 광주군공항 소송피해 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는 15일 공군제1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는 소송피해 주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배상을 위

“판결 대법관 하루만 살아봤다면...”

10년 기다려온 주민들 낙담속 반발 광주지역 소송 4년째 국내 최고

해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 항공기에 적용하고 있는 피해보상 기준(75웨클)을 공군전투기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주민 보상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주민대책위는 또 배상을 위한 소송과 입법 촉구 외에도 광주 군공비행장 이전운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송고통에 시달리는 주민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부대를 이전하는 운동을 본격화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주민들은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주민대책위 측은 배상액 기준으로 208억원(이자별도)이던 것이 23억원으로 줄게 됐고, 1차 소송 주민 967명 가운데 극소수인 1200여명만 배상을 받게 됐다고 낙담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추가 소송에 참여한 3만여명의 주민에 대한 배상 가능성도 작아졌다는 분위기다.

국감권 주민대책위원장은 “원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불과 5웨클을 조정하라”는 판결이 나와 주민 대다수가 배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전투기 소송때문에 집에서 전화 통화는 물론 일상 생활도 제대로 못하며 10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은 상실감 속에서 국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투기 ‘소음’ 어느 정도기에= “판결을 내린 대법관이 광주 군공항에서 딱 하루만 살아봤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광주 군공항 소송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도대체 광주 군공항 소음은 어느 정도기에 10년에 걸쳐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걸까. 우선 제1전투비행단이 있는 광주공항의 소음은 인천공항 등 국내 모든 공항을 압도한다. 세계 각국 항공기가 셀 수 없이 이·착륙하는 인천 공항도 따라올 수 없을 수준이다. 지난 2010년 이후 4년간 국내 최고 ‘소음 공황’ 타이틀을 내주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13년 항공기 소음 측정량 운영결과’에 따르면, 광주·김포·인천 공항 등 전국 15

개 공항 주변 104개 지점에 설치한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을 분석한 결과, 광주공항은 평균 소음 87웨클로 가장 높았다. 인천공항 소음(62웨클)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어 ▲군산·정주공항 85웨클 ▲대구공항 82웨클 ▲원주공항 81웨클 ▲김해공항 78웨클 ▲김포공항 76웨클 등의 순이었다. 공교롭게도 광주를 포함, 소음도 상위 5곳은 모두 군공비행장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공항이다.

광주공항 인근 송대동에 설치된 측정망의 경우 소음이 93웨클까지 치솟아 전국 104개 측정망 가운데 가장 소음이 심각한 지점이다. 광주공항이 인천공항 등 전국 16개 공항을 제치고 가장 시끄러운 공항으로 4년째 선정된 것은 바로 ‘공군 전투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주공항이 유독 시끄러운 공항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데는 군 전투기 운항 횟수가 많은 점, 엄청난 굉음을 내는 초음속 훈련기 T-50을 수십대 보유하고 있는 점도 소음 유발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군은 광주공항 주변에서 150m~1km 사이 초저고도에서 항공기의 최대성능을 보여주는 고난도 비행 훈련을 하는 등 잦은 저고도 훈련을 수시로 해 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 일지

- ▲2004년 전투기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 구성
- ▲2004년 1차 소송인단 3만1025명 모집
- ▲2005년 9월 서울중앙지법 1차 소장 접수
- ▲2009년 2월18일 서울중앙지법 소송인 3만1025명 중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 1만3900명만 승소, 215억원 지급 판결
- ▲2009년 3월 2차 소송인단 1만5706명 서울중앙지법 소장 접수
- ▲2009년 11월 3차 소송인단 6044명 서울중앙지법 소장 접수
- ▲2013년 1월31일 1차 소송 서울고등법원 80웨클 이상 주민 9673명에 208억원 배상 판결
- ▲2014년 7월25일 4차 소송인단 1만400명 서울중앙지법 소장 접수(1심 중)
- ▲2014년 8월27일 2차 소송 서울중앙지법 주민 7200명에 104억원 지급 판결(2심 중)
- ▲2014년 8월27일 3차 소송 서울중앙지법 주민 2400명에 25억원 지급 판결(2심 중)
- ▲2015년 10월15일 1차 소송 대법원 파기 환송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5일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 장 입구 로텐더홀에서 ‘이념편향 역사 교과서’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전국 교육감과 협의 역사교재 공동개발”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15일 정부의 국사교과서 단일화 추진과 관련, “뜻을 함께하는 전국 교육감과 교재 공동개발, 공동대처 방안 등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렇듯 시의원이 국사교과서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사회가 이룩해온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율성, 다양성, 다양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교육감은 “획일적인 사관으로 역사를 주입하는 국정교과서 발행은 누가 보더라도 독재적 발상 일뿐 아니라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로 되돌려 학생들을 무비판적 사람으로 만들려는 비교육적 발상”이라며 “정권의 요구에 따라 교과서 서술이 바뀌어 교육현장에서 일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가정 ‘역사와 철학’, ‘역사와 인문학’ 등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교육권 권한인 인정 도서 개발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시, 시민, 역사교사들과 함께 ‘역사교육 제대로’ 캠페인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국·검정 교과서가 있으면 인정 교과서를 둘 수 없는 만큼 국사 교과에는 단일 교과서를 사용하고 다른 선택 교과를 개설해 그에 맞는 인정 교과서를 개발한다는 뜻이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당정 총공세·장외 여론전...여야 ‘교과서 전쟁’ 극한 대치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놓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긴급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총력전을 다짐하면서 역사교과서 외 학습용 참고서와 교과서 지침서의 이념 편향성까지 거론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역사쿠테타’로 규정 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외 여론전을 확대하는 한편, 집필진 참여 거부를 선언하는 역사학계와 반대 여론이 큰 시민사회단체, 국제여론 등의 지원을 받아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15일 긴급 정책의원총을 열어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실상 역사교과

새누리 “지침서도 규제” 전선 확대

새정치 피케팅 시위·서명운동 압박

서 국정화를 당론으로 채택한 셈이다.

의총에는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과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임연대 상임대표가 초청받아 의원들 앞에서 ‘왜 새로운 집필 방식의 역사교과서가 필요하지’ 공개특강을 했다. 아울러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의총에 서술이 편향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한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이례서 바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배포했다.

이날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김용남·김희국·박명재·하태경·강은희 의원 등은 일제히 ‘국민통합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했으며, 반대나 우려 표명은 없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국정화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돼 눈길을 끌었다.

장외여론전에 나선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연결해 국정교과서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또 문재인 대표는 이날 유신독재 희생자 유가족과 간담회를 통해 국정화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자신의 조부인 항일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순국 83주기 추모 학술회의를 찾아가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전날부터 상임위원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 새정치연합은 이날도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피케팅 및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국정교과서 추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사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겨냥 “예결위에선 단 한문도 역사를 왜곡하는 사업에 쓰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곧 시작될 예산안 정국에서의 결사투쟁을 예고했다.

이처럼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가질 예정이었던 만찬회에도 취소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버스타어(2박3일)

상품가격	완도·여수출발 269,000원 / 목포출발 249,000원 상품판매기간: 10월12일 - 12월 20일까지
출발인원	10인 이상출발 / 10인 이하 별도 문의 / 20인 이상 오메가 서비스
포함사항	1. 선박: 완도-제주 or 목포-제주 왕복 선박 (여객터미널 이용료 포함) 2. 호텔: 신축 관광호텔 4인실 기준 2박 3. 차량: 25인승 소형버스 3일 (20명 이상 45인승 대형버스) 4. 전일정 관광지, 전일정 식사 포함 (완도발 7식, 목포발 6식)
선박정보	블루나래호: 완도(09:30발) → 제주(11:10착) / 제주(16:30발) → 완도(18:10착) 씨스타크루즈호: 목포(09:00발) → 제주(13:20착) / 제주(17:00발) → 목포(21:20착)

1일차 목포 or 완도항 출발 → 제주항도착 → 비비방만들기체험(목포출발 제외) → 천연염색체험 → 메아리체험(제주오름 트레킹) → 저녁식사(갈치조림) → 숙소

2일차 숙소 → 한리산 원전정복(성판악-백록담 코스 / 중식 도시락) → 해수사우나 → 저녁식사(흑돼지구이) → 숙소

3일차 숙소 → 세계유네스코 등재 수월봉, 차귀도 탐방 → 점심식사(해물전골) → 조랑말승마체험 → 디미파크 기마공연(완도출발 제외) → 농수산물 직판장 → 제주항 → 목포 or 완도항 도착

본 일정은 현지 기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렌터카 자유여행(2박3일)

상품가격	4인기준 1인 149,000원부터 / 3인기준 1인 169,000원부터 2인기준 1인 214,000원부터 상품판매기간: 10월12일 - 12월 20일까지 * 본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출발인원	2인 이상출발
포함사항	1. 항공: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권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2. 호텔: 신축 관광호텔 2박 기준 (2인 조식포함) 3. 차량: K5, YF소나타 LPG 기준 (48시간) /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 포함 4. 식사, 관광지 불포함.
항공정보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 이코노미(일반석) 항공사: 광주출발: 15:45 제주출발: 14:25 (2박3일 일정) 유의사항: 항공기 정비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스케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일차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도착 후 렌터카 인수 → 자유일정 → 숙소

2일차 자유일정

3일차 숙소 → 자유일정 → 제주공항 도착 및 렌터카 반납 → 광주공항 도착

본 일정은 현지 기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할인 제주숙소

제주할인 펜션	1박 50,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제주할인 리조트	1박 8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제주할인 호텔	1박 7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할인 제주렌터카

아반떼, 레이, K3, SM3	[24시간 기준] 주중 17,000원 / 주말 23,000원
K5, YF소나타	[24시간 기준] 주중 19,000원 / 주말 26,000원
카니발, 그랜저스타렉스	[24시간 기준] 주중 39,000원 / 주말 49,000원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컨소시엄 참여업체 예약문의 | 064-743-1100